

통합특별시 3개 청사 균형 활용 '62.4%'...한곳 집중 '22%'

광주연구원, 시도민 1001명 인식조사

초대 통합특별시장 역할 '기업·투자유치' 최우선 꼽아 정부지원 20조 사용처, 신산업 유치·일자리 창출 선호

다들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지역균형발전 중심의 상생도시'를 가장 바라는 미래상으로 꼽았다. 또한 통합특별시 청사는 현재 운영 중인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정부 지원금 20조원은 신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연구원은 최근 광주·전남 시도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시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인포그래픽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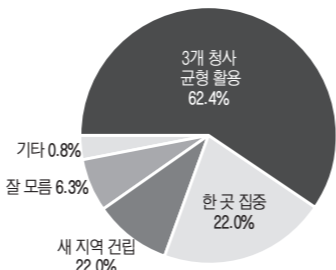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으며, 광주시민 436명과 전남도민

565명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0%p다.

조사 결과 시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통합특별시의 미래상은 '지역균형발전 중심 상생도시(36.0%)'로 나타났다. 이어 '산업·경제 중심 성장도시(22.5%)', '생활·문화 중심 포용도시(21.3%)', '문화·관광 중심 국제도시(8.9%)', '시민주권 중심 도시(6.6%)' 등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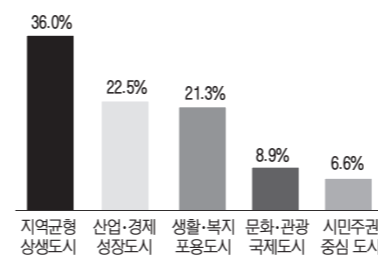
다만 지역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광주지역 응답자들은 '산업·경제 중심 성장 도시(30.0%)'를 가장 선호한 반면, 전남 지역 응답자들은 '지역균형발전 중심 상생 도시(47.3%)'를 1순위로 선택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운영



자료제공: 광주연구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래 도시상



자료제공: 광주연구원

전남 동부권에서는 상생도시에 대한 선호가 62.3%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부권은 '생활·복지 중심 포용도시(38.5%)'를 가장 선호했다.

통합특별시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산업·경제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및 창업 확대(36.1%)'가 가장 높았고,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25.7%)'이 뒤를 이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필수·응급의료 서비스 보장(31.3%)', '상생·균형' 분야에서는 '농산어촌 생활서비스 강화(25.0%)'와 '지역 간 교통 편의성 제고(24.5%)'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35.2%)'과 '지역자원 활용 관광 브랜드(35.0%)'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38.5%)',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현장실무·직업교육 확대(38.8%)'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는 '기업 및 투자유치'가 43.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갈등 조정 및 협력 유도(20.8%)', '비전 및 발전 방향 제시(16.3%)', '시민 소통 및 의견 수렴

(11.0%)' 순으로 조사됐다.

또 취임 후 1년 이내 최우선 과제로는 '지역경제 산업전력수립(53.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행정·공공서비스 안정화(39.2%)', '행정통합 예산 확보(31.4%)', '시군구 재정 불균형 해소(28.6%)', '시민 정서적 통합(23.7%)' 등이 뒤를 이었다.

청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4%가 현재 운영 중인 광주 상무지구, 무안군, 순천시의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한 곳으로 청사를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22.0%, '새로운 지역에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정부의 20조원 지원금 활용 방안으로는 '신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6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복지·공공서비스 격차 해소(46.5%)', '교통·생활 인프라 확대(43.7%)', '통합행정 시스템 정비(24.9%)', '문화·예술·관광 활성화(16.9%)'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특별시 출범이 지역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 평균 64.0점으로 집계됐다. 긍정 응답은 59.1%로 부정 응답(14.6%)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20대 이하 청년층의 긍정 응답 비율은 49.8%로, 50대 이상(57.5%)보다 낮아 세대 간 기대감 차이가 확인됐다.

출범 이후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시설·인프라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광주 17.0%, 광주 근교 32.4%, 전남 동부권 45.7%, 전남 서부권 55.7%로 조사돼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균형발전전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기근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거주지역과 연령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미래상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수준에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차이를 고려해 지역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발전 전략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동구 흥화관 갤러리 예향광주 특별기획전 11일 광주 동구 서남동 흥화관 갤러리 개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념 예향광주 특별기획전 전시 개막행사에 참석한 임택 동구청장. 이영철 흥화관 갤러리 대표, 참여 작가 및 가족, 문화예술인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구례·보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내달부터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보성은 20만원

전남도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구례군과 보성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위해 주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구례군 주민은 7월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받게 된다. 보성군 주민은 정부 지원 기준 월 15만원에 더해 보성군이 자체 재원으로 월 5만원을 추가해 총 월 20만원을 지원 받는다.

앞서 전남에서는 곡성군과 신안군에 이어 구례군과 보성군까지 선정돼 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주민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늘려 가맹점주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

또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소비처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 경제주체의 활동과 연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돌봄과 교육, 일자리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구례군, 보성군과 함께 기본소득 사업비 전액을 산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지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은 지역주도 성장 첫 모델”

전남광주대통합기획위원회는 11일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센터에서 업무공유회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주요 현안과 행정 전환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업무공유회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과 기획위원회 20명이 참석했으며, 광주·전남 기획·행정 분야 실·국 업무보고와 현안 공유,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민 당선인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 성장 시대를 넘어 5극 3특 체제 속에서 지역주도 성장의 첫 모델을 만드는 일”이라며 “해방 이후 80년 동안 이어진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광주와 전남이 성장의 주체로 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은 5

대전기획위, 2일차 업무공유회...기획·행정 분야 집중 논의
행정 전환 준비 주문...특별법 시행 대비 자치분권 전략 모색도

월 광주정신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과정이자 시민주권시대와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국가적·지역적 전환의 중대한 시점에서 공직자들이 역사적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위원회는 이날 통합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광주·전남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에 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정체계 변화와 자치분권 전략 수립 방안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위원들은 통합특별법이 각 부서 업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적 한계와 보완 과제를 사전에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 영역 중심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내부 역량을 적극 활용해 정책 수행 능력과 행정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들은 “통합 이후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AI 기반 행정혁신과 민생 지원 정책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도시 브랜드(CI) 기본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청년수당과 복지 지원, 각종 보조금 기준 등 광주와 전남 간 제도 차이에 대해서도 통합 이후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 인구감소지역 숙박비 최대 7만원 할인

16개 시군 대상 숙박세일 페스타 이달 말까지 진행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구감소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 7만원의 숙박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강진·고

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등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 숙박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최대 7만원의 숙박요금을 할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2026 대한민국 여름맞이 숙박세일페스타'의 하나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할인 대상은 해당 지역의 호텔과 리조트, 콘도, 펜션 등 숙박시설이다.

할인 금액은 숙박 기간과 예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박 상품은 7만원 이하 예약 시 3만원, 7만원 미만 예약 시 2

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박 상품의 경우 14만원 이상 예약하면 7만원, 14만원 미만 예약 시에는 5만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숙박 할인쿠폰은 여기여매, 놀(NOL), 11번기, G마켓, SSG닷컴, 카카오톡 예약하기, 마이리얼트립, 하나투어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여행사(OTA) 31개 채널에서 오는 11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예술특구 현황 파악...관광·경제 활성화 필요

▶1면에서 이를 위해 국내 문화예술지구의 현황 등 현주소를 깊이있게 조망하면서 올해로 40여년 특화거리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예술거리(1987년 특화거리 지정) 등을 포함해 전북 전주 팔복에 송광사,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인천아트플랫폼 등을 통해 국내 예술특구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중국 북경 798예술특구와 대만 가오슝 보일예술특구 등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화도시라고 주장하지만 그를 뒷받침할만한 유형적 공간의 부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시하면서 도시의 근대산업유산이나 건축물, 공장 건물 등을 재생해 성공한 아시아예술특구로의 여지를 찾는 동시에 지자체와 정부에 가능성이 있는 지대를 예술특구로 선포하고 명실상부한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들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예술특구 현황과 현장을 파악한 뒤 국내 예술특구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개발우주의 접근을 탈피하고 근현대문화유산 혹은 산업유산의 재생을 통해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아시아 몇몇 예술특구들은 이미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리모텔링을 통해 새로운 재생공간. 더 나아가 감성공간으로 탈바꿈,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핫플레이스 되는 등 관광산업 및 골

목상권을 망라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이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문화예술의 현실에 대해 관심을 꾸준히 표명해온 중견 김상연 작가는 최근 옛 전남방직 옆을 지나다가 드는 느낌을 SNS에서 토로했다.

그는 “광주는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것보다 원래 특별했던 것을 없애는 데 더 익숙한 도시 같다. 역사의 유물과 예술이 만나면 불꽃처럼 빛날텐데 현대를 만나 그곳은 번개처럼 꺼지는 것이다. 뽕나무 뽕집이 루돌 마저 사그리 베어내며 그 위에 미래를 세운다고 말한다”면서 “하지만 기억 없는 미래는 결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일 뿐이다. 정치를 외치지만 사람을 잃고, 예술도시를 말하지만 예술의 승결은 지워버린다. 곁을 돌보지 못하는 도시가 어떻게 세계를 말할 수 있을까. 광주는 늘 전시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예술특구 현황과 현장을 파악한 뒤 국내 예술특구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개발우주의 접근을 탈피하고 근현대문화유산 혹은 산업유산의 재생을 통해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아시아 몇몇 예술특구들은 이미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리모텔링을 통해 새로운 재생공간. 더 나아가 감성공간으로 탈바꿈,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핫플레이스 되는 등 관광산업 및 골